

ISSUE REPORT

5G테크 ETF 신탁(RISE 네트워크인프라) 최근 하락에 따른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

6월 반도체 쏠림으로 급등한 시장은 애플의 CXMT DRAM 채택 요구, 키옥시아 특허 소송 패소, TSMC 투자 부담 등 관련 산업의 이슈와 더불어 레버리지 ETF로 인한 숏감마 확대, 중동지역 긴장 격화 등 노이즈가 발생하며 유례 없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RISE 네트워크인프라는 통신장비, 기판과 더불어 메모리, 컨트롤러 칩 등의 반도체 비중이 매우 높은 ETF로 현 시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에 보유 고객분들의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을 담은 레포트를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대응 전략: 급등한 이익 추정치를 지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구간

6월까지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논리로 주가의 상단을 끊임없이 높여왔지만, 6월부터 수요자(하이퍼스케일러, 네오클라우드)의 자금능력에 대한 우려, CXMT 등 경쟁자의 등장과 가격하락에 대한 의심이 퍼지며 주가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기업은 향후 AI 사이클에서 최대 수혜가 여전히 메모리이고, 다른 업체들의 수익성이 훼손되더라도 마이크론이 언급한 바와 같이 몇년간의 이익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발표와 함께 LTA(장기공급계약)에 대한 내용이 주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7월 16일 기준 두 종목을 제외한 KOSPI의 PER 또한 8.0 수준을 보여 과거의 저점 수준에 머물기에, 상승의 트리거가 다시 부여되었을 시 회복을 위한 발판은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익에 기반한 주식가격은 절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판단되며, RISE 네트워크인프라 ETF의 경우 이러한 이익 가시성이 높은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지수 반등 시 그 수혜를 빠르게 반영 가능한 상품으로 판단됩니다. 하락의 공포가 큰 구간이지만 **1) 현재의 포지션을 유지 혹은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만, 최근 9영업일간 7번의 사이드카 발동 등 당분간 높아진 변동성이 빠르게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고객분들께서는 **2) 당분간 일부 주식비중을 줄이고 반등신호를 확인 후 재진입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향후 전망: V자 반등보다는 계단식 상승 예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말 발표될 2분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내용이 증시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22일 알파벳을 시작으로 그간 우려를 높였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실적 및 CAPEX 가이드نس 또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주가는 펀더멘털이며, 올해 반도체의 순이익 증가율은 약 600%,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 또한 2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 가격은 적정 수준을 찾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록 투자자는 단기 대응에 내몰리고 고점 우려에 흔들리게 되지만 결국 주식은 펀더멘털을 따라가며, 강세장을 끝내는 조건인 이익 모멘텀 둔화와 유동성 긴축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상반기 고점까지의 V자반등 기대는 어려우나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며 전 고점 수준까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